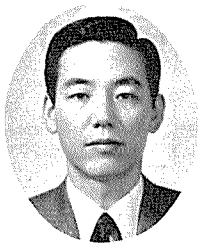


80年代 石油政策 推進方向



尹 秀 吉
(動資部 石油調整官)

1. 序

우리나라의 에너지 供給構造의 특징 내지는 문제점은 에너지의 海外依存도가 深化되어 經濟의 安定成長에 危脅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中에서도 특히 石油依存도가 해마다 커져서 지난 70년에 47%였던 석유의존도가 80년에는 60% 水準까지 늘어남으로써 現在와 같은「石油不安時代」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 동시에 國內 유일의 賦存資源인 石炭도 부존상태의 貧弱과 採炭與件의 악화로 增産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代身할 代替에너지 開發도 여러가지 制約條件으로 인해 크게 進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에너지의 需要構造도 70年代의 高度成長에 따라 에너지多消費 産業構造가 定着되다시피 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石油消費 증가로 國民經濟에 負擔이 加重되어 왔던 것이다. (表1 參照)

〈表1〉 우리나라의 石油輸入 比重

	'70	'80
石油輸入代錢	1	60(億弗)
GNP 의	1.3	10.5(%)
輸出額의	11.1	35.0(%)

이에 따라 政府는 82년부터 시행될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서 에너지部門의 기본방향을 첫째, 경제성장에 副應하는 에너지와 資源을 蹉跌 없이 공급하고, 둘째, 에너지供給源을 多元化하여 에너지供給構造를 改善하며, 셋째, 우리의 힘으로 國內外에서 石油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넷째 에너지의 節約 및 利用合理化를 통해 外貨의 절약과 함께 企業의 경쟁력을 培養토록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石油의 安定공급을 圖謀하는 한편, 脫石油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國內외의 資源開發을 極大化하며, 에너지節約과 利用合理化를 위한 시책을 펴 나가도록 細部推進對策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政府 에너지政策上的 기본 방향은 한마디로 石油依存도를 감축 함과 동시에 他에너지의 依存도를 높임으로써 앞으로의 經濟成長을 위한 에너지 供給의 원활을 기하는 것인 바 80年代의 石油政策推進方向도 이러한 큰 테두리內에서 石油부문의 需給圓滑을 위한 對策마련에 焦點이 모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현재 우리의 石油政策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이에 대한 對策方向을 중심으로 論述하고자 한다.

1. 現況 및 問題點

정부의 第5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上 86年

에 가서는 国内에너지의 49.8%만을 石油에 의존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은 80年代中에는 国内에너지源의 主宗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重要한 石油資源의 安定確保 및 適期供給은 앞으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이에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正確한 인식을 갖는 것도 앞으로의 石油政策을 수립해 나가는데 가장 基本이 될 것이다.

(1) 原油需給上の 問題

현재 우리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 8 個国에서 原油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物量은 81年 10月 현재 57만 6천 B/D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國際原油市場상황이 供給過剩現象을 보이고 있어 所要物量 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전문가들의 見解도 當分간은 세계적인 原油공급과잉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어 특별한 狀況變化가 없는 한, 短期的으로는 物量確保面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表 2〉 우리나라의 原油導入對象地域

(單位: 千Bbl(千B/D))

区分	中 東 地 域					中東地域以外	合 計
	사우디	쿠웨이트	이 란	中立地帶	計		
80年実績	109,556 (299)	49,140 (134)	15,515 (43)	3,845 (11)	178,056 (487)	4,806 (13)	182,862 (500)
構成比	59.9%	26.9	8.5	2.1	97.4%	2.6%	100%
81. 10月	(332)	(100)	(50)	(14)	(496)	(80)	(576)
構成比	57.6%	17.4	8.7	2.4	86.1%	13.9	100%

그러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는 原油導入先이 特定地域에 偏重되어 있다는 점이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중 우리나라의 原油도입선은 97.4%가 中東지역이었으며, 그간의 계속적인 導入先多邊化政策에 힘입어 81년 10월 현재로 中東依存도가 86.1%로 대폭 낮아지는 했으나, 중동 지역의 政情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日本의 경우에는 80년중에 原油의 중동의존도가 73.2%에 불과하였으며 今年들어서는 이 比率이 점차 낮아져 현재는 60%를 上廻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導入國家數로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8개의 産油国으로부터 도입해 오고 있으나, 日本은 22개국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供給의 安定性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현저히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原油確保와 관련하여 또 하나 問題點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原油導入方式의 문제이다. 8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原油 57만 6천B/D중 메이저를 통해 도입하고 있는 분이 24만 6천B/D로서 42.7%이며, 우리나라 政府와 産油国과의 契約에 따라 도입되는 분이 28.6%, 精油会社直導入분이 8.7%, 그밖에 民間商社가 仲介하여 도입되는 분이 20.0%로서 〈表 3 참조〉아직도 메이저를 통한 原油導入比重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메이저를 통한 원유도입은

〈表 3〉 우리나라의 原油導入形態 (81. 10月現在)

(單位: 千B/D)

形態別 区分	메이저 供給	政府間 契約導入 (G-G)	精油会社 直導入 (D-D)	商社仲 介導入	計
導入量	246	165	50	115	576
構成比	42.7%	(28.6)	(8.7)	(20.0)	(100%)

우리나라가 커다란 努力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原油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長點은 있으나, 제 2차 石油波動時에 보아왔던 바와 같이 物量不足事態 發生時에는 安定的인 供給을 保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産油国의 動向도 원

유를 메이저에 판매하는 방식 대신, 實消費國과의 直接契約에 따라 販賣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對應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精油会社가 所要物量을 직접 도입하거나 아니면 民間商社를 통해 도입하는 方式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民間商社가 仲介하여 原油를 도입할 경우, 原油의 實需要者인 精油会社와 連繫性이 부족하여 애써 도입한 원유가 国内 精油시설로는 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民間商社간에 原油도입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同一産油国에 數個의 民間商社가 경

○特別企劃○

합되어 오히려 不利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 세계각국이 수년전에 이미 100日分 이상의 石油備蓄物량을 보유한 상황하에서 第2次 石油波動을 맞았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30~40日分の 物량을, 그것도 純粹한 의미에서의 備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精油會社의 正常稼動을 위한 在庫水準을 유지하였던 까닭으로 인해 第2次 石油波動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야만 했던 事實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우리가 備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再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敵對勢力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石油라는 戰略物資의 비축은 經濟性的의 문제를 떠나서 安保的인 次元에서도 소홀이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만 關心을 集中시켜온 결과 備蓄의 問題까지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이 事實이다. IEA같은 곳에서는 85년까지 최소한 1백20日分 이상의 物량을 備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45日分 수준의 物량만을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며, 各國의 備蓄水準은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1백일분 이상의 物량을 備蓄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表4> 各國의 石油備蓄水準

韓國	日本	프랑스	西獨	美國	臺灣
90	110	120	131	73	90日

(2) 製品需給上的 문제

일단 確保된 原油라 하더라도 이를 精製하여 국민생활에 使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國內製品需의 增加에 따른 供給能力의 適期確保문제는 국내수요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精油工場의 건설에는 設計에서부터 공장의 竣工에 이르기까지 약 3~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事前에 적정규모의 정유공장 建設을 豫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는 현재까지 許可된 施設能力만으로도 需要에 비해 크게 不足한 점이 없으나 <表5 참조>,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또 다시 精油施設의 新增設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것

<表5> 우리나라의 精製施設過不足 判斷

(單位: 千B/D)

區分	'82	'83	'84	'85	'86
需要(原油換算)	600	620	631	640	694
必要精製能力(A)	751	775	789	800	868
既許可施設規模(B)	790	790	850	850	1,000
餘有比率(B/A)	105	102	108	106	115

註: 必要精製能力은 80% 稼動基準임.

<表6> 우리나라의 長期油類需要構造

	'81	'86	'91
輕質油	16%	21%	21%
中間油	29	41	50
重質油	55	38	29

이다. 여기에서 특히 注意를 요하는 사항은 需要量的 增加도 문제지만 質的인 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世界各國의 油類需要는 보다 輕質化되고, 高級化되어 가는 것이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重質油 需要構造에서 中間 내지 輕質油 수요구조로 전환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精油施設은 重質油 생산위주로 되어있는 시설이므로 적절한 施設補完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80년대 中반에는 重質油過剩生産 및 輕質油 供給不足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重質油 生産抑制을 위한 稼動率 縮少는 또다시 輕質油 不足狀態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로 外國의 경우 油類의 消費構造를 살펴보면 <表7>과 같이 輸送用 등 高級의 油類消費가 특

<表7> 各國의 用途別 石油類 消費構造

(單位: %)

用途別 國別	產 業 用				輸送用	家庭用 其他	小計
	發電	化學	其他 鎂工業	計			
韓國 (80年)	24.2	18.6	21.6	64.4	19.4	16.2	100
日本 (79年)	23.1	11.6	22.8	57.5	24.7	17.8	100
美國 (78年)	15.2			15.2	58.9	25.9	100
西獨 (78年)	24.7			24.7	29.0	45.3	100

資料: • 日本: 石油資料 月報(81. 4月)

• 美·獨: 日本 石油資料(1980. 5. 16)

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油價政策上的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石油類製品の 價格을 政府가 統制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各精油会社別로 原油導入價格이나 精製費가 각각 相異하지만 国内 油價의 安定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 정유회사의 原價를 算定檢証하여 이를 토대로 国内油價를 決定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 2차 석유과동에 따라 多元化된 原油價格을 平準化하는 한편 精製費는 国内 정유회사의 平均精製費를 油價에 반영함으로써 원유가격의 차이에 따른 각정유회사간의 현저한 損益差異를 緩化하고, 대신 精製費 측면에서의 經營合理化를 유도함으로써 가급적 国内 油價의 引上幅을 낮추도록 운용하고 있다.

지난 81년 4월 19일 調整되어 시행중인 현행 油價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原油價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低價로 原油를 도입하는 湖南精油의 平均導入價格인 31.44\$/B로 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모든 원유에 대해 一律的으로 3.50\$/B씩 부과함으로써 조성된 安定基金으로 基準原油價와의 差額을 補填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精製費는 배럴당 3천 7백43원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油價政策은 많은 長点を 갖고 있으며 이러한 制度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제 2차 석유과동을 그런대로 넘길 수 있었으나 반면에 현시점에서와서는 많은 問題點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과연 民間主導型 經濟運用을 基調로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原油價를 平準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원유가평준화제도에 필연적으로 遂伴되는 安定基金制度의 운용 문제이다. 특히 종전까지는 安定基金을 精油会社의 損益調整手段으로 사용함으로써 缺損이 크게 발생한 精油会社에 대해 갖가지 名目の 損失補填을 실시함으로써 (表 8 참조) 國民들로부터 安定基金의 運用에 關해 상당한 誤解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原油價平準化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原油를 低價로 도입하거나, 高價로 도입하거나 간에 별 차이가 없게 되어 低價原油導入을 誘導하지 못함과 동시에 高價원유도입을 抑制하려는 努力이 微微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低價로 원유를 도입하는 会社는 이러한 平準化제도에 상당한 不滿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油種間의 價格體系에 있어서도 현재의 체계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國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價格체계는 揮發油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제외하고는 全體的으로 가격이 낮은 반면, 重質油의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서 다소 特異한 構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의 油種間 價格體系는 그나라의 産業구조 내지는 政策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外國의 構造가 理想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價格체계는 적절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表 8〉 安定基金에 의한 精油会社補填実績 ('79~'80)

(單位: 億圓)

區 分	社 別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79年	(1) 上半期原油價差額	75	-	2	-	-	77
	(2) SPOT原油導入損失	-	9	34	-	-	43
	(3) 製品導入損失	40	35	17	-	-	92
	(4) 低價原油인센티브	-	136	-	-	-	136
	(5) 輸送費差額	-	-	51	-	-	51
	(6) 原油質差異基準價格調整	-	-	-	-	8	8
	計	115	180	104	-	8	407
'80年	(1) USANCE換差損(90日分)	277	228	47	40	13	605
	(2) 低價原油인센티브	-	630	-	-	-	630
	(3) 新設精油社 支援	-	-	-	256	-	256
	(4) 原油導入先多辺化支援 (輸送費差額)	-	-	7	-	-	7
	(5) 備蓄施設促進	-	-	-	11	13	24
	(6) 原油質差異基準價格調整	18	-	17	46	14	95
	計	295	858	71	353	40	1,617

註: 原油高價差額 補填除外

〈表 9〉 油種間價格의 國際比較(消費者價格基準)

() 내는 普通揮發油를 100으로 하였을때의 指數임.

(單位: 원/ℓ)

油種	國別	韓國	日本	臺灣	싱가포르	西 獨	프랑스	美 國
高級揮發油		1,010 (144)	-	549 (104)	344 (108)	346 (103)	462 (106)	264 (103)
普通揮發油		700 (100)	389 (100)	530 (100)	318 (100)	335 (100)	437 (100)	257 (100)
燈 油		268 (38)	191 (51)	284 (54)	258 (81)	467 (139)	246 (56)	179 (70)
輕 油		255 (36)	185 (48)	265 (50)	226 (71)	287 (86)	342 (78)	193 (75)
重質燃料油 (B-C油)		198 (28)	140 (36)	143 (27)	210 (66)	188 (56)	132 (30)	65 (25)

資料: KOTRA 海外支店 現地調査(81. 7. 10 현재)

이러한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휘발유의 경우 높은 特別消費稅率에 기인한 高價格수준은 相對的으로 低價이면서도 代替使用이 가능한 LPG로의 需要轉換을 촉진하고 있는 등 油種間 需給問題를 야기시키고 나아가서는 産業構造까지를 歪曲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流通構造上的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流通構造는 휘발유, 등유, 경유의 경우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의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B-C油등은 정유회사-대리점의 단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 유통단계별로 가격도 政府가 直接決定하여 告示하고 있으며 石油販賣業마저도 原則的으로 許可制를 채택함으로써 油類에 관한 한 政府가 生産에서부터 最終 消費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介入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구조상의 多段階는 결과적으로 最終消費者의 負擔을 加重시킴과 동시에 許可의 利權化 및 서비스 不在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代理店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특이한 존재이다. 물론 美國에도 우리나라의 대리점과 같이 정유회사로부터 製品을 받아 소비자에게 까지 輸送해주는 기능을 가진 존재가 있으나 이들은 단지 제품을 수송만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리점과 같이 都売기능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日本의 特約店도 우리의 경우와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

유통단계에서 특히 代理店단계가 문제되는 것은 現在 代理店이 輸送, 貯藏, 金融, 流通기능을 担当하고 있는것은 事實이나 이들이 獨自의인 마진을享

受하도록 政府가 결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流通段階에서도 競争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다는점 등인 것이다.

3. 80年代의 石油 政策 推進方向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石油분야에 對의 現況 및 문제점을 분석해봄으로써 80年代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政策方向은 용이하게 整理될 수

있을 것이다.

(1) 원활한 原油需給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石油가 우리나라 에너지源의 主宗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한, 原油需給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石油政策의 가장 重要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原油導入先의 多邊化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는 현재 86.1% 수준인 中東依存度를 86년까지는 60% 수준으로 낮추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도입선 다변화는 현재와 같은 中東爲主의 導入政策보다 필연적으로 原油輸送單價의 上昇을 초래하게 되어, 國內油價의 安定維持라는 政策 목표와 相馳되나, 장기적인 원유수급안정을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도입선다변화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政府는 多邊化 對象地域이 中東지역 보다 遠距離로서 追加的인 運賃이 소요될 경우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支援策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둘째, 原油를 도입할 경우 精油會社의 直導入 形態를 적극 권장토록 하고, 부득이 民間商社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에는 一産油國一商社 원칙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도입선다변화 및 新規供給國을 우선 確保토록 함은 물론이다.

셋째, 石油의 備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86년까지는 政府도 60일분 정도의 物量을 備蓄할 계획이며, 民間 精油會社도 83년까지는 60일분 貯藏施

設을 完工토록 유도해 나가겠다.

(2) 需要變動에 따른 製品供給

한편 국내 油類需要의 輕質化 추세에 대처하여 輕質油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輕質製品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輕質原油를 도입하여 精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方案은 역시 重質油分解施設의 설치가 될 것이다. 정부는 각 정유회사가 86년까지 9만B/D의 중질유분해시설을 갖추도록 추진중에 있다.

(3) 国内油價의 安定管理

앞으로의 国内油價政策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國民經濟運用的 범주내에서 이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81년 10월 29일 제네바에서 開催된 OPEC特別會議의 結果, 原油價의 單一化가 實現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觀點에서 現行 油價管理制度는 根本的인 再檢討를 하여야 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첫째, 原油費가 각 정유회사 原價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종전과 같이 原油價가 多元化된 상황이 계속되는 한 原油價平準化制度는 어떤 형태로든 실시 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原油價가 一元化가 되었으므로 現在와 같은 原油價 平準化제도의 지속은 원칙적으로 廢止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現在까지 各國의 原油價水準이 통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연 원유가 일원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다.

만약 原油價의 一元化가 事實上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現在와 같은 原油價平準化制度의 基本情神은 계속하여 살리는 方向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 安定기금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使用 用途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安定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막고 精油會社의 經營合理化 노력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즉 종전과 같이 정유회사의 缺損을 安定基金에서 사후에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유회사의 결손은 價格에 반영된 精製費의 現實化로 대처해 나가되, 安定기금은 본래의 설치목적에 따라서만 사

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運賃追加負擔지원등은 계속 安定기금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정부는 앞으로의 經濟運用방식을 民間主導型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油價도 점진적으로 精油會社가 自律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물론 이에선 정부의 事前 事後에 결친 지도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油種間 價格構造도 점차적으로 輕質油와 重質油間의 價格差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나 단기적으로는 現행 特別消費稅, 車輛用연료유간의 均衡, 石油化學工業에 대한 支援 문제 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長期 方向에 접근시켜 가게 될 것이다.

(4) 流通構造의 改竄

이와 동시에 石油流通부문에 관한 競爭原理를 도입하여 각 경영주체의 經營合理化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石油販賣業에 대한 現행의 許可制를 申告制 또는 登錄制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價格告示도 工場渡價格과 最終消費者價格만을 고시하고 代理店단계의 가격고시를 폐지 함으로써 流通段階別競爭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유통단계에서의 심각한 混亂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予想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補完한 후 실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5) 福祉社會具現을 위한 政策推進

그밖에 에너지源의 多元化와 長期安定確保를 도모하고, 無公害로서 저렴한 燃料를 각 家庭에 공급하기 위하여 都市燃料의 가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가스普及에 대한 기본체제를 大都市에는 LNG, 中小도시에는 지역별 集團供給, 기타는 容器에 의한 LPG로 보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현재 全家口의 10%에 불과한 가스普及率을 86년까지는 30% 수준까지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83년까지는 全南麗川郡에 LPG 受入基地를 確保하고, 京畿道 平澤郡에 대규모 LNG 受入基地를 건설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끝으로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는 大氣오염을 防止하기 위해 低硫黃燃料油의 공급을 확대토록 하였

○特別企劃○

〈表10〉低硫黃 燃料油의 供給計劃

	'82	'83	'84	'85	'86
B-C油	24	27	53	59	71
輕油	33	33	53	84	100

(%)

避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소요되는 건설 기간과 막대한 資金所要 등을 감안하여 우선 低硫黃原油를 도입 精製토록 하되, 이와 병행하여 脫黃施設설치를 추진함으로써 86년까지는 低硫黃B-C油의 공급율을 71%, 저유황輕油의 공급율은 100%까지 높여도록 할 계획이다. 〈表10 참조〉*

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脫黃施設의 설치가 不可

海外話題

庶民을 올린 소련의 油價引上

소련의 市民生活이 갑자기 밀어 닥친 오일 쇼크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소련政府가 단행한 一連의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휘발유價格이 한꺼번에 2배로 경증 뒀으므로 이제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西方제국보다 훨씬 비싼 기름을 사 쓰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世界第一의 產油國」이라고 선전해온 소련이 어찌서 휘발유값을 그토록 대폭 인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소련當局은 그런데에는 아랑곳 없이 시민들의 마이카의 꿈을 산산히 깨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각오를 굳히고 있는 것 같다.

모스크바市內의 아파트周邊에는 요즘 버려진 승용차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油價 인상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던 마이카들이다. 이제 이 마이카族들은 지하철이나 버스출퇴근으로 바꾸고 있다. 注油所도 휘발유소비저조로 울상이다.

이번의 휘발유價格引上和 함께 酒類, 담배류의 17~27%, 귀금속, 毛皮등 사치품의 25~30% 인상도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발표내용은 단순히 휘발유가 「배럴당 30~40코페िका(2백70원~3백60원)인상」되었다는 정도였으나, 인상율은 1백%線에 이르고 있다.

78년 3월에 역시 1백% 인상을 올린 것, 소련의 휘발유값은 3년반만에 무려 4배나 오른 셈

이다.

소련當局은 「그래도 西歐제국보다 소련의 휘발유값이 싸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미 美國의 油價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西方측에 비해 소련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油價인상의 충격은 훨씬 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휘발유(보통) 1ℓ에 7백원에 비하면, 소련의 휘발유값은 1ℓ에 3백60원으로 싸다. 그러나 소련市民의 평균賃金은 月 1백72루블(약15만 3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인상을 받아들이는 서민들의 충격은 한결 심각하다.

그런데 크레믈린國家價格委議長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련國內의 도매가격을 현실화시켜 原油의 도매가격을 톤당 일률적으로 30루블로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배럴당 4루블(약 5.5달러)의 인상폭이 된다.

原油가 세계시장가격의 약 6분의 1로 싼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휘발유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들에게는 罰則의인 가격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소련當局은 「소련은 세계시장에 石油공급을 계속하고 있어 石油절약이 外貨획득과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볼때, 소련政府가 國內의 석유소비절약분을 수출로 돌려 外貨획득에 혈안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外紙에서〉*